백 · 갈색란 소비 확대, 생산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구 천 석
자훈농장 대표, 본회 이사

지난 1997년말 아시아 전역에 몰아닥친 IMF 사태로 인해 국내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료가격 폭등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농가들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및 사료회사들의 사료 값 외상기간 단축 등에 의하여 1998년도 상반기에는 입추량을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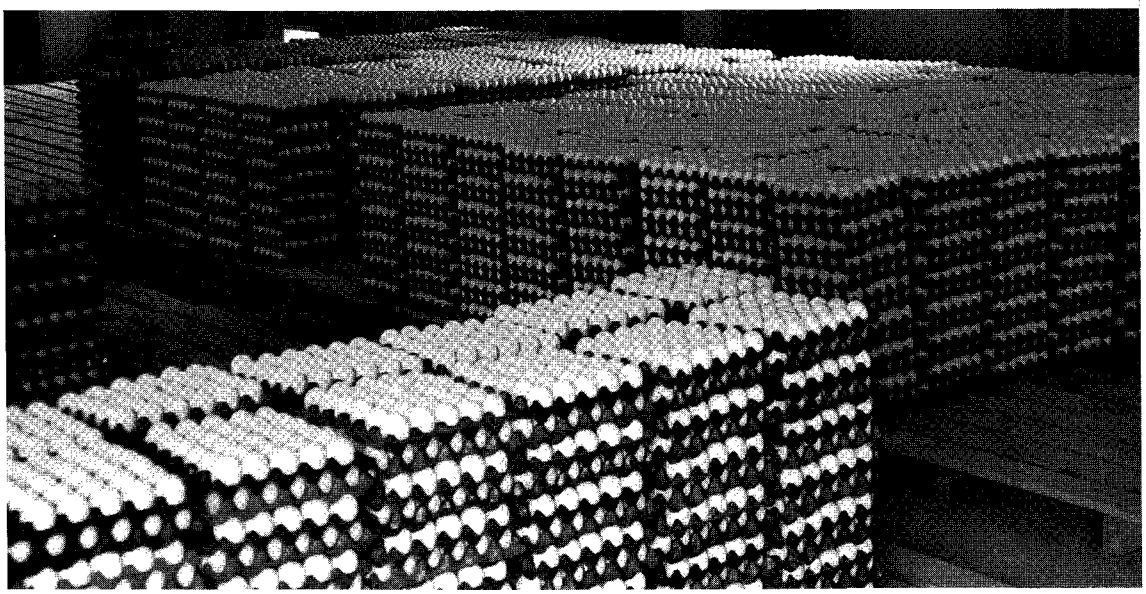
따라서 지난 6월에는 입추량보다 과잉생산되는 병아리로 인해 병아리 가격이 하락되면서 종계업계에서는 한 달간 병아리 생산을 중단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금년 4월까지 계란가격이 대체적으로 고가를 유지하면서 채란경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폭등했던 사료값이 점차 인하되었고 대출이자도 많이 내렸으며, 사료회사들은 다시 외상사료를 대량 공급하기 시작하자 다시 입추 열기가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축협에서 발표한 8월 축산관측 자료에 의하면, 3월말 산란계 사육수수가 47,503천수이고, 6월말은 49,650천수로서, 한 달에 약 70만수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월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7월 한달 초생추 판매 수량이 3,457천수로서 지난해 월 평균 294만수를 훨씬 초과하여 입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산란계 사육수수는 5,000만수를 넘어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료가격과 대출이자의 하락, 지난해 하반기와 올 봄의 다소 좋았던 계란 가격에 힘입어, 우리 채란 업계는 사상 최고의 산란계 마리 수를 사육하게 되었고, 반면에, 우리나라 경기는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다이옥신 파문까지 일어나고 보니 계란 소비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 매장 등에서 계란이 세일품목 제1순위, 즉 미끼상품으로 전락하였으



며, 시장에서 제일 싼 것이 계란이란 말이 주부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 채란업계가 처해진 국면이 이러할진대, 일부 상인들은 계란을 수입하여 계란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며 냉장창고에 보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모르는 채란업자들은 왜 계란 값을 계속 올리지 않느냐고 불만에 섞인 말까지 하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채란분과위원들은 계란값을 유지시켜 보려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지 않고, 계란 시세를 다루는 각 지역 대표들도 어떻게 잘 해보자고 합의하여 결의사항을 만들었지만, 단 한번을 실천에 옮겨 보지 못하고 각 지역 위주로 제각기 행동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좁은 땅덩어리에 어떤 이유로 해서 10가지씩이나 계란 시세발표가 있어야 하는지 서로가 협조하여 크게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 동안 적정수준을 넘어서 입추된 산란계들이 여러 가지 질병, 특히, 가금티푸스에 의하여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조기 도태되어 계란 생산이 다소 조절되었다.

이제는 너무나 가금티푸스가 워낙 만연되다 보니, 채란 업자들도 조금씩은 가금티푸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고 각자가 가금티프스 방역에 다소 대처하는 능력이 생겨서 어느 정도는 계란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가금티푸스에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농장들은 백색 산란계를 입추시키고, 가금티푸스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이로 인해 백색 병아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고 지난 일년 동안은 백색 병아리 가격이 갈색 병아리 가격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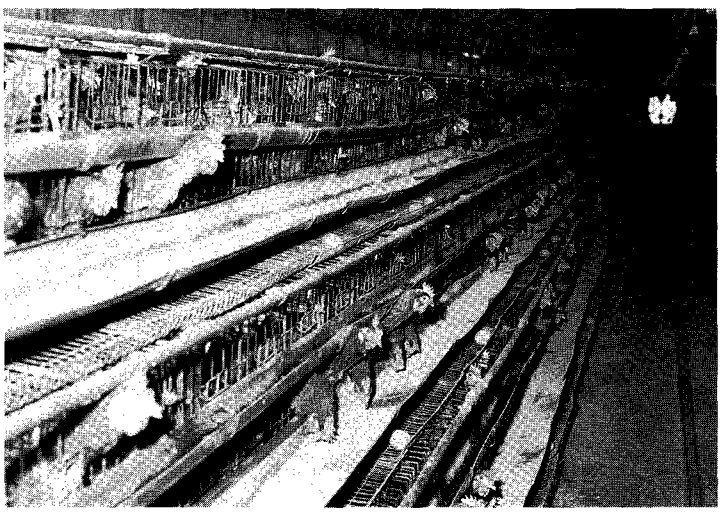
부화장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너도나도 백색 종계를 육성하여 현재는 전체 산란종계의

8.5%가 백색 종계라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

1998년도 6월 이전에는 백색란의 생산 필요에 따라서 백색 병아리가 입추 되었지만, 그 후에는 가금티푸스 예방차원 등 갈색계를 사육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백색계를 사육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육되기 시작한 백색계로 인해 백색란이 과잉 생산되면서 계란유통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과잉 생산된 백색란이 갈색란 가격까지도 하락시키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가금티푸스에 의하여 다소 생산조절이 되던 현상도 줄어들어 계란의 과잉생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우리 업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면 누구나 계란 생산 과잉을 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제 우리 채란업자들도 계란 생산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한 계란은 일부라도 내가 판매처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물론 현재 생산을 하면서 판매처를 확보하여 유통에 뛰어든 농가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 채란인들은
내 친척, 내 친구 등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란에 대한 지식을
일깨워주고, 갈색란이나, 백색란이
영양면에서 똑같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많은 돈을 들여서 TV나 신문지상에
홍보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내 주위부터 홍보를 하여야 한다.

현재 가금티푸스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농가가 이제는 생산된 계란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백색계를 사육하겠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판매망을 우선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생산한 계란은 내가 판매해보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백색란은 상인들도 취급하기를 꺼려하고, 갈색란만 구매하던 소비자들도 백색계란에 쉽게 손이 가질 않는다. 계란이라면 갈색계란만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바꾸어 놓는데는 우리 채란 인들의 노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백색란을 판매하고 있는 몇 사람의 판매사례를 살펴보면, 매장에 납품할 때, 갈색란과 백색란을 반반씩 포장하여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고, 갈색란보다 더 신선한 알을 공급하여 흰 알만을 요구하도록 한 경우도 있

으며, 모 상인이 백색 알 120판을 매장에 진열하려하자, 매장 측의 거부로 진열조차 하지 못하자 농장 주인이 직접 매장에 나가 판매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여 진열하고 직접 판매한 결과 두 시간 여만에 흰 알 120판이 다 팔려나갔다. 이러한 흰 알 판매 결과를 보고 매장 측에서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 없이 흰 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아, 소비자들의 갈색란 선호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모두가 홍보하고 또 홍보하면 갈색계란 못지 않게 흰 계란의 선호도도 커져 가리라 본다.

그리고, 우리 채란인들은 내 친척, 내 친구 등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란에 대한 지식을 일깨워주고, 갈색란이나, 백색란이 영양면에서 똑같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많은 돈을 들여서 TV나 신문지상에 홍보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내 주위부터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것저것 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우리 채란 업계가 처해진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진데, 우리는 주위의 누군가가 양계장에 간판을 내릴 때만 기다리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말과 같이 우리나라 채란 업계는 지금, 산란계 5,000만수를 사육하면서 계란 생산 과잉이라는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놈에게 물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이런 처지를 정부도 해결하여 주지 못하고 양계협회나 축협 등 어느 단체에서도 해결하여 주지 못한다. 오로지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에 따라 우리의 문제가 차츰차츰 해결될 것으로 본다. 양계

개량 토종닭 분양

※ 분양품종

★ 한협 3호 분양
★ 청둥오리 분양

※ 병아리 분양 및 상담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분양합니다.

1974 동남농원

주 소 :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34)672-0088, 674-0606, Fax:(0334)674-0050
핸드폰 : 011-307-7208, 호출기 : 012-1363-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 : 윤 용 구
우체국 : 101634-0021930, 예금주 : 윤 용 구